

'3퇴'와 평안

제 350기 2019년 1월 6일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외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한 인원:

3억 2,338만 명

대륙 민중이 파룬궁 창시인에게 신년 인사를 드린다

[명혜망]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가 1992년부터 전해지자 1억이 넘는 사람들이 반본귀진(返本歸真)의 길에 올랐다. 또한 수천 수만을 헤아리는 세인은 대법을 수련하지 않고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만을 인식하고도 똑같이 파룬따파의 보호를 받았다. 2019년 신년에 즈음하여 중국 대륙의 민중들은 파룬따파 창시인 리훙쯔 선생님에게 연하장과 축사를 보내 대법의 커다란 은혜에 감사를 드렸다!

후난성 징저우현의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다. “저희 집 식구가 모두 대법 진상을 알고 ‘3퇴(퇴당, 퇴단, 퇴대)’한 후에 정말 좋은 운이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하든 모두 아주 잘 됐고, 반기를 들던 아들도 사리가 분명해졌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저는 진상 대련까지 사용합니다. 그중에 한 폭은 제가 3년 동안 붙여놨는데, 오른쪽에는 대법도세인인인귀정도(大法度世人人归正道), 왼쪽에는 진상 전만가가 가송불은(真相传万家家家颂佛恩), 위에는 파룬따파 하오(法轮大法好!)입니다.”

베이징 시청구의 열두 식구가 사는 가정이 리 대사님께 새해 인사를 올렸다! “저희 집은 4대가 함께 사는데, 리 대사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 식구가 3퇴해서 평안을 보전한 후에 정말 연달아 경사입니다.”

베이징의 한 중학생도 리 대사님께 새해 인사를 올렸다! “한번은



우연한 기회에 제가 대법제자로부터 진상자료를 받고, 소선대를 탈퇴했는데, 그는 저한테 ‘파룬따파 하오(法轮大法好), 쪐싼린 하오(真善忍好)’를 외우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말고사를 치면서 마음속으로 그 아홉 글자를 외웠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늘이 돋는 것 같았고……, 저는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합니다.”

정부 당위서기가 유럽 여행 중에 탈당하다

[명혜망] 유럽의 어느 유명 관광지에서 대륙 여행객 한 무리가 파룬궁 수련생 전 여사로부터 ‘3퇴(퇴당, 퇴단, 퇴대)’하여 평안을 보전하는 진상을 들었다. 먼저 당위 정, 부서기가 탈당에 동의했고, 이어서 한 고관이 탈당했다. 이후에는 수많은 대륙 여행객이 ‘3퇴’를 했다.

전 여사가 대륙 여행객에게 말했다. “지금 대륙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것부터 호흡하는 것까지 어디에 안전한 게 있나요? 곧 새해가 되는데, 돼지고기를 감히 먹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조류독감이 또 유행한다는데, 닭고기도 감히 못 먹지 않나요?! 독분유와 독백신 미해결, 독약품도 미해결, 유전자 변형 식품마다 유전자 조작 아기도 폭로됐어요.”

한 여행객이 말했다. “중국인에게는 최소한의 안전 보장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건 바로 아파서 입원하는 건데, 병이 낫든 안 낫든 반 달 만에 죽거나는데, 다시 1,500위안을 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중국인한테 무슨 생활의 질이 있겠어요?!”

다른 여행객이 말했다.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모두 외국으로 날랐어요. 우리 백성들은 명을 하늘에 맡겨야죠!”

여행객들은 저마다 한 마디씩 하며 중공의 부덕을 큰 소리로 욕했다. 전 여사가 말했다. “중공은 창립한 그날부터 사람을 죽이고 해쳤어요. 선악에 보통이 있으니 ‘하늘이 중공을 멸할 거예요.’ 중공이 빨리 도태되기

를 바라지만, 그게 도태될 때는 순장품을 끌어들여요. 중공의 당, 단, 대에 가입하고 탈퇴 성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주 위험해요. 애초에 소선대, 공청단, 공산당에 가입할 때 모두 주먹을 들고 일생을 그것에게 바치겠다는 선서를 했어요! 이건 자신의 생명을 공산당에 바치겠다고 맹세한 것과 같지 않나요? ‘하늘이 중공을 멸하는’ 때에 탈퇴 성명을 하지 않고, 독한 맹세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 중공과 함께 도태될 거예요! 하지만 신은 사람에게 목숨을 구할 기회를 주었는데, ‘3퇴’하면 곧 평안을 보전할 수 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옆에 있는 한 중년 남성을 가리키며 전 여사에게 그가 자신들의 당위서기라고 말했다. 전 여사는 그 당위서기에 말했다. “보아하니 당신은 불임성이 있는 분인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먼저 (당을) 탈퇴하라고 추천하겠어요?” 그 당위서기는 웃으면서 시원스럽게 말했다. “(당을) 탈퇴 할게요. 안 할 수 없네요.” 그는 또 웃으며 말했다. “아, 나중에 제가 식사를 대접할게요. 모모 반점에서 모실게요.” 옆에 있던 사람이 말했다. “그건 우리 지역에서 제일 좋은 식당이에요. 저 분 말은 틀림없어요.”

또 한 사람이 전 여사에게 서기 옆에서 있는 남성은 부서기라고 알려주었다. 전 여사는 그에게 탈퇴하겠느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탈퇴할게요.”

또 한 사람이 한 중년 남성을 가리키며 전

여사에게 밀했다. “당신은 알죠? 저분은 성서기예요.” 그는 낯이 익었고, 아주 기품이 있는 남자였다. 그에게 탈당을 권했지만, 탈퇴하지 않았다. 전 여사가 말했다. “과연 당신은 불퇴를 사수하는데, 감투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알려 드려야겠네요. 생명은 모두 평등한 거예요. 당신이 고관이든 아니든 신은 선악의 선택을 봐요. 당신이 탈당 성명을 해서 신불이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에게 미래가 있고, 그 다음에 공명과 이익과 관록이 있어요. 당신이 자신의 생명을 잡고 싶어도 관직이 지켜주는 못해요. 지금 국내외 형세를 못 봤나요? 전 세계가 모두 중공을 포위해서 말일이 도래했어요. 저는 정말 당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데, 절대로 중공의 순장품이 되지 마세요! 제가 가명을 지어 ‘3퇴’를 도와 드릴 테니 독한 맹세를 지우세요. ‘3퇴’ 후에는 전염병이 왔을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신불이 당신을 격리해줄 거예요. 당신이 신불의 관할로 들어가면 중공 사령이 당신을 제어할 수 없어져요.” 여기까지 듣고 그는 눈빛을 반짝이더니 주먹을 들며 말했다. “좋아요. 당신 말을 들을게요.”

한 여행객이 말했다. “제가 파룬궁을 수련하지는 않지만, 적극 지지합니다.” 전 여사가 빨리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하라고 하자 그가 앞장서며 말했다. “탈퇴할게요!” 여행단의 버스 문이 닫히기 전, 대륙에서 나온 안내원까지 즐거운 표정으로 ‘3퇴’를 했다.

‘3퇴’ 후 복을 받아 큰 거래가 성사된다

[대륙 투고] 파룬궁 수련생 A는 성인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최근 많은 신입생이 입학을 했다. 그는 예전처럼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하는 진상을 알렸다. 어떤 학생들은 아주 시원스럽게 설명이나 가명으로 ‘3퇴’를 했고, 어떤 학생들은 망설이면서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다.

그 중 한 학생은 특히 소심한 모습을 보였다. A는 그에게 걱정이 있음을 알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네가 만약 인터넷에 올리는 걸 걱정한다면 ‘3퇴’ 성명을 돈에 써서 물건을 살 때 써버려도 효과는 똑같아. 사람�이 하는 걸 하늘이 보고 있어.”

그 학생은 A의 말을 듣고 즉시 해명을 했다. “선생님, 선생님이 저한테 여러 번 진상을 이야기해서 저는 잘 알아요. 저는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그러신다는 것도 알고 ‘3퇴’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은 모두 군인이고 기름 장사도 해요.” “너희가 파는 기름이 식용유야? 아니면 석유야?” 학생이 말했다. “석유예요.” “그건 큰 사업이잖아!” 학생이 말했다. “네. 지금 큰 거래가 있는데, 최근 한 동안 잘 안 됐고 어떻게 해도 안 돼서 걱정이에요! 제가 지금 탈당을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영향을 줄까봐 두려워요. 이번 거래가 되든 안 되

든 결과가 나오고 조용해지면 제가 ‘3퇴’를 할게요.”

그녀가 망설이는 이유를 안 A는 자신이 ‘3퇴’를 한 후에 뜻밖의 행운을 얻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네가 시험 삼아 먼저 ‘3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거야. 아마 이번 거래에 새로운 전기가 나타날 거야.” 학생은 반신반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그 학생을 다시 만나자마자 ‘3퇴’의 일이 어떻게 됐는지 물었다. 그녀는 곧바로 A의 말을 끊으며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선생님, 제가 마침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찾고 있었어요. 정말 너무나 신기해요! 제가 선생님 말씀대로 집에 가서 돈에다 ‘3퇴’ 성명을 적고, 이를 아침에 일부러 나가서 물건을 샀는데, 물건을 사자마자 거래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와 면담을 하자고 했어요. 그날 오후에 그 거래가 순조롭게 성사됐어요. 더 신기한 건 그것 외에도 거래를 두 건 더 해서 오후에만 큰 거래 세 건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고, 너무나 신기해요! 너무나 불가사의해요!”

그 학생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3퇴’ 후에 신기한 일이 생기고, 행운이 나타났어요. 저는 이걸 정말 믿어요!”



‘톈안먼 분신자살’은 조작

● 파룬궁 책 속에는 살생과 자살이 모두 유죄라고 명시되어 있다. 진정한 수련인은 살생이나 자살, 분신자살을 절대 할 수 없다.

● 2001년 8월 14일, 유엔 회의에서 국제 교육개발기구는 ‘톈안먼 분신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중공 당국의 ‘국가 테러주의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 영상 분석 결과 정부가 사건 일체를 연출했음이 드러났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휘발유가 연소할 때 회염의 온도는 섭씨 500도가 넘을 것인데, 이런 고온 속에서 CCTV 화면 속 왕진동은 꼼짝없이 앉아있을 수 있었고,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았다. 경찰은 소방 담요를 들고 옆에서 기다리다가 왕진동이 카메라를 향해 구호를 모두 외친 후에야 소방 담요를 그에게 덮었다. 이것이 연극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정법 인원에게 ‘우울증’이 흔한 이유

[명혜망] 중공 관리가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것은 대륙에서 이미 흔한 일이다. 이 일을 바이두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도 흔히 볼 수 있다. 중공 <법제일보> 보도에 의하면 “정법 계통 관리가 빈번하게 자살하는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우울증’이다.”

1999년 7월부터 중공 두목 장쩌민이 파룬궁을 상대로 박해를 발동한 이후, 인심을 잃는 황당무계한 이번 박해를 유지하기 위해 장쩌민은 정법위의 권력을 강력하게 키웠고, 정법위는 법외 기관이 되어 일체의 기관을 압도하게 되었다. 정법위 관할 아래의 공, 검, 법 기관은 파룬궁 단체에 대해 전기고문, 사인상(死人床), 음식물 강제 주입, 아오잉(熬鷹, 매를 오래 삶는다는 뜻인데, 파룬궁 수련생을 잔혹하게 박해하는 고문의 일종), 그리고 생체 장기적출 등 백 가지가 넘는 정신적 학대와 육체적 학대를 자행했다. 대량의 파룬궁 수련생은 고문을 받아 정신병을 얻고, 불구가 되고, 사망했다.

권력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없고, 그의 행위가 음험해 사악과 같으며, 가장 기본적인 도덕 준칙이 없다면 그의 머릿속이 무엇으로 가득하겠는가? 선량한 사람에게 악랄한 수법을 쓰고, 좋은 사람에게 도살용 칼을 휘두른다. 장시간 사악에 물든 중공 체계는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처단하며, 파룬궁 수련자를 박해할지를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울해지지 않겠는가? 어떻게 밟아질 수 있겠는가?

● 우시시에서 파룬궁 박해를 전담한 정법위 서기 장훙량은 이 당시 룽베이산 삼림공원에 있는 108미터 높이의 원평탑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훙량은 생전에 ‘우울증’을 앓았다. 그런데 장은 생전에 파룬궁 수련생 박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002년 6월 구이저우에서 발견된 ‘장자석’ 단면에 ‘중국공산당망’이란 6개의 큰 글자가 나타나 ‘천멸중공(天滅中共)’이라는 하늘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

● 광저우시 공안국 당위부서기이며 부국장인 치샤오린은 자신의 사무실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했다. 치샤오린이 담당한 국보대대는 파룬궁 박해의 주요 조직이었다. 광저우시 공안국은 치샤오린도 생전에 ‘우울증’을 앓았다고 주장했다.

악한 보응을 받아 목숨을 잃은 이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누가 이런 생명을 위험한 곳으로 밀어 넣었는가? 곧 중공 사당이라는 ‘당’의 외투를 걸친 공산 사령과 마귀의 화신 장쩌민이다!

9평 편집부가 2017년에 출판한 <공산주의의 최종 목적>은 ‘공산 사령’의 진면목과 인류를 훼멸하려 온 최종 목적의 핵심을 세인들에게 폭로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오늘에 이르렀고, 중공 사령과 마귀 장쩌민의 숙청이 이미 눈앞에 도래했다. 아직도, 혹은 이전에 파룬궁을 박해한 사람들이 즉시 박해를 중지하고, 잘못을 깊고, 빨리 ‘3퇴’ 해 아름다운 미래를 갖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